

마이코플라즈마 청정화 유지돼야 양계산업 발전한다.

□ 정리 / 김용화 홍보팀장

「본고는 현재 양계질병의 급증 현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 보기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마이코플라즈마 생균백신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김태환 사장과 만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MG생균백신 보급에 앞장서고 계신데 현장 상황은?

△ 김태환 : 그간 우리가 양계업을 하면서 수입개방이다, 시설자동화다 하면서 몸살을 앓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는 생산성을 높이는 길만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매년 질병 발생은 더 확대되는 것으로 생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MG만 하더라도 아주 후진국형 닭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근절은 커녕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어 그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MG는 그간 일부 종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고,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았나 생각되었는데, 실용계 농장에서까지 문제가 될 정도로 양성률이 높은게 사실입니까?

△ 김태환 : 몇몇의 종계장들은 MG 청정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관리가 나쁜 농장들은 의외로 양성계가 많아 실용계에까지 큰 피해를 미치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생추가 ND, IB 등 분무접종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으려면 두말할 나위 없이 MG가 없는 병아리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 병아리 유통은 주로 소개업자를 통해 받기 때문에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섞여서 올 수도 있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종계에서부터 MG의 청정화가 되어야 수직감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가끔 생균백신은 접종하면 오히려 농장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들을 갖는데?

△ 김태환 : 일부 균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균백신이라고 전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TS-11균주는 높은 면역력을 유지시키면서도 농장을 오염시키지 않는 안전한 백신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면 허가를 해 주었겠습니까?

▲ 닭 질병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MG와 결부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 김태환 :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언급할 수 없지만 저는 금일의 가금티푸스나 ND, IB 등 수 많은 질병들이, MG와 혼합감염이 되면 MG는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의 배설을 증가시켜 수직 또는 수평감염의 기회를 넓혀준



△ 김태환 사장

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로 밝혀진 사실로 볼 때, MG와 연관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최근의 닭 질병상황은 전문 수의사들의 진단에 의하면 호흡기 인자의 단독감염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호흡기 인자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기인하는 매우 어려운 호흡기 질병과 대치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MG와 호흡기 바이러스의 혼합감염은 일반적으로 2차 감염인자인 대장균에 감염되면 복합 만성호흡기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건강한

닭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대장균 같은 병원체도 감보로 바이러스, 마렝 바이러스, 전염병 빈혈증 바이러스와 결합되어 합병증을 나타낼 수도 있어 닭 질병에서 MG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닭 질병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백리도 없어야 할 대상이고 MG, 가금티푸스, ND, IBD, IB, 여기에 SE 등 수없는

질병이 닭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사람에게까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MG만이라도 우리나라 닭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닭 질병으로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데

MG 생균백신 "TS-11"을 보급한 후 반응은?

△ 김태환 : 일시에 질병을 다 근절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 할 것입니다. 먼저 주요 질병부터 목표를 설정하여 수직감염을 막고 이어 수평감염을 차단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TS-11"백신에 대한 반응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약 60만수분 정도가 공급되었는데 종계가 가장 많습니다. 적정한 계군들에서 호흡기질병 발현이 없어지고 항생제 구입비

이 대폭 줄었으며 육성율이 높아졌습니다. “TS-11”을 접종한 계군들이 곧 산란을 시작하게 되는데 산란말기까지 청정화가 유지될 것이며 산란수 증가, 산란후기의 난각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종란 이용율이 높아지고, 발육 중지란 감소, 부화율 향상, 초생추 폐사율 감소 효과가 눈에 띄게 개선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란계 사육농가의 “TS-11”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산란계 농장의 생산성 향상 질병발생 및 비용절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양계업을 하는 양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이점은 오랫동안 양계분야에서 닭과 함께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요성을 이해

하시리라 믿어집니다. 속히 MG 없는 양계농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향후 계획은?

△ 김태환 : 저는 늘 약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용을 갖추어 농가의 이익 향상을 위해 함께 뛰는 각오로 새로운 분야에 뛰어 들었습니다. 어느 질병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마이코플라즈마는 피해 정도가 엄청나서 생산성 향상이나 양계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청정화가 이루어져야 국내 시장확대는 물론 수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계가 MG free 상태가 되지 않으면 수출은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양계인들이 MG free를 위해 모두가 노력한다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 감사합니다. 양계

개량 토종닭 분양

※ 분양 품종

- ★ 한협 3호 분양
- ★ 청둥오리 분양

※ 병아리 분양 및 상담

- 매주 [화요일] [금요일] 분양합니다.



동남농원

주 소 :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송천리 478번지
 전 화 : (0334)672-0088, 674-0606, Fax:(0334)674-0050
 핸드폰 : 011-307-7208, 호출기 : 012-1363-7208
 농 협 : 237020-52-019626, 예금주:윤 용 구
 우 체 국 : 101634-0021930, 예금주:윤 용 구